



## 회원사 동향

KOREAN  
ELECTRICAL  
MANUFACTURER  
ASSOCIATION

### 평일산업, 종합 중전기업체로 발돋움

평일산업(주)(대표 김봉주)이 11월 1일부로 회사 이름을 (주)평일로 바꾼다.

평일은 접속재 및 절연물 전문업체로서의 이미지를 탈피, 종합 중전기 회사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회사 이름과 로고(사진)를 변경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도 대폭 확대 개편키로 했다고 밝혔다.

유근양 평일 전무는 “2000년대 들어 폴리머현수애자를 비롯해 지중·가공개폐기, 피뢰기 등 중전기 제품을 속속 개발 공급하고 있다”며 “70년대 이후 지금까지 일궈온 접속자재 전문업체로서의 확고한 위상에다 중전기 전문업체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사명을 개칭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무는 또한 “중전 회사 로고에 있던 태두리를 삭제해 로고를 더욱 단순화함으로써 ‘기술로 인류를 포용한다’는 상징성을 더욱 부각시켰다”고 말했다.

평일은 지난 70년 설립 이래 지금까지 케이블 접속재와 에폭시 부싱 등 접속자재 개발에 주력, 접속자재 전문회사로 발돋움했으며 2000년부터 지중용 개폐기, 가공용 개폐기, 고장구간자동개폐기, 변압기내장용 개폐기(OLBS) 등 각종 개폐기 제품을 개발, 2001년부터 시판했다. 또한 국내 최초로 폴리머현수애자를 개발하고 폴리머 피뢰기, 폴리머 COS, 디지털전력량계 등 중전기 분야 약 1천300여종의 다양한 제품을 생산, 연매출 500억원대의 중전기 종합업체로 도약하고 있다.

평일은 또한 접속재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으며 최근 원자력발전소용 전기관통구설비(EPA)를 국산화, 신규 원전에 공급할 예정이다.

유 전무는 “국내외 발주형태가 단품 위주에서 패키지 발주로 변경되고 있어 평일도 패키지 수주가 가능한 중전기 종합업체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현대중, 인버터 시리즈 개발

현대중공업(주)(대표 김영남)은 지난17일 기존 제품에 비해 부피는 줄고 성능은 대폭 향상된 인버터를 개발·출시했다.

이번에 선보인 제품은 N300(고성능 벡터 인버터), N300-P(팬, 펌프전용 경제형 인버터), N300-K(e마크 인버터)등 종류다.

N300 고성능 벡터 인버터는 냉각팬, 콘덴서, 제어단자대 착탈식으로 유지보수가 편리하며, RS-485통신을 기본으로 탑재해 기존 인버터에 비해 통신기능이 대폭 향상됐다.

특히 국내등급 최소 사이즈로 패널 제작이 쉽다.

N300-P 팬, 펌프전용 경제형 인버터 에너지 절감효과가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자동으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운전모드 내장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임의로 운전패턴을 7단계 까지 설정할 수 있다.

이 제품도 냉각팬, 콘덴서, 제어단자대 착탈식으로 유지보수가 편리하다.

N300-K e마크 인버터는 절감전력이 kW당 19만8000원으로 한전 특별지원금을 최고 5천만원까지 무상 지원받을 수 있다.

소비전력을 기존 제품에 비해 37%(50Hz), 20%(55Hz)까지 절감할 수 있으며 주회로, 제어회로 전원의 소음을 대폭 줄인 것이 특징이다.

## LG전선, LG그룹에서 전격 분리

LG전선(대표 한동규)이 LG그룹에서 전격적으로 계열 분리된다.

LG그룹은 지난 30일 LG전선, LG니꼬동제련, LG칼텍스가스, 극동도시가스 등 창업고문 일가(구태회, 평회, 두회)가 대주주로 돼 있는 4개 계열사의 분리 작업을 완료하고, 이달 초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 분리 신청서를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LG전선 등 4개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기간을 거쳐 올해 말 그룹에서 완전 분리될 것으로 보인다.

LG그룹은 지난 8월 12일 LG전선이 보유하고 있던 LG에너지 지분(20%) 중 5.1%를 LG건설에 넘기는 등 그동안 공정거래법상의 계열 분리 요건(지분을 15% 미만)에 맞도록 지분정리 작업을 진행해왔다.

또 지난달 30일 구태회 창업고문의 장남인 구자홍 회장이 LG전자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면서 친족 계열 분리 요건(상호 임원 겸임 금지)도 충족시켰다.

4개사는 일단 계열 분리와 동시에 개별 회사별로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구자홍 前LG전자 대표를 중심으로 LG전선그룹을 설립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LG전선 등 4개사의 지난해 총 자산 규모는 3조9,949억원, 매출 규모는 5조2,110억원으로 자산규모 재계순위는 27위에 해당한다.

### 비츠로테크, 원전용 진공 기중차단기 개발

(주)비츠로테크(대표 양훈)가 원자력발전소용 진공차단기(VCB)와 기중차단기(ACB)를 개발, 신규 원전에 납품을 준비하고 있다.

중전기 중견업체인 비츠로테크(옛 광명기전)는 지난해 3월 원전용 VCB, ACB 개발에 착수해 지난 9월말 한국전기연구원의 엄격한 개발시험에 합격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비츠로테크는 신고리원전 1·2호기와 신월성원전 1·2호기에 들어갈 배전반에 신제품을 납품할 계획이며 차단기 계약 규모만 총 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신규원전 배전반은 현재 입찰심사가 진행 중이며 올 연말 낙찰자가 결정될 전망이다. 또 배전반에 들어가는 차단기류는 현대중공업과 비츠로테크가 경합을 벌일 전망이다.

### 서울산전, 가스개폐기 시장 진입

(주)서울산전(대표 구연정)이 가스개폐기 시장 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이 회사는 22.9kV 가스절연부하개폐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내년 개발을 완료, 한전에 공급한다는 전략이다.

서울산전은 현재 가공용 가스개폐기 개발을 사실상 마무리한 상태며 지중용 가스개폐기는 올 연말 개발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을 완료, 내년 하반기에 있을 한전 연간단가 입찰에 참가할 계획이다.

서울산전 권경걸 이사는 “민수 위주의 매출구조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 가스개폐기, COS 등 한전 매출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이사는 또 “10월 말 있을 가공용 가스개폐기 입찰에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한전 등록업체 심사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개발 일정을 연기했다” 고 말했다.

70년 설립한 서울산전은 계기용변성기(MOF)를 주력 생산해 오다 90년대 말부터 컷아웃스위치(COS), 고장구간자동개폐기(ASS), 파워퓨즈(PF), 단뢰기(LA) 등으로 생산품목을 점차 확대, 배전 기자재 전문업체로 발돋움하고 있다.

## 대원전선, 예산공장 준공식

대원전선(주)(대표 서명환)은 지난 10일 오장섭 의원, 박종순 예산군수 등 지역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예산공장 준공식을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연매출 1천200억원대의 전선 중견기업인 대원전선은 지난 4월 충남 예산군 고덕면 오추리 일대 3만5천평(건평 8천500평) 부지에 새공장을 설립해 본사와 생산공장을 이전, 이후 예산공장에서 전력·통신선을 생산해 왔다.

## 삼진 변압기, 고강도 친환경 변압기 개발

삼진변압기(주)(대표 김문환)가 저손실 고강도 환경친화적 변압기 개발을 마치고 대한전기협회에 전력신기술 지정을 신청했다.

“이번에 삼진에서 새로 개발한 기술은 단락기계력이 강한 코어 프레임을 개발, 변압기의 손실을 줄이고 강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또 변압기 제작시 권선을 감을때 바니시함침(코일이나 권선이 움직이는 것을 방지해 주는 일종의 접착제로 전기적인 절연성을 갖고 있는 화학물질)을 생략한 권선방법과 권선을 좌우 대칭으로 고압과 저압 자계가 일치하게 하는 권선방법을 개발 환경친화적인 변압기 제작방법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조만간 대한전기협회에서 신기술 지정을 위한 각계 전문가회의를 거쳐 신기술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 조일성업전기, 몰드변압기 시장 본격 진출

조일성업전기(주)(대표 김영성)이 몰드변압기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조일성업은 올 연말까지 시제품을 생산한다는 계획아래 현재 설비와 인력보강을 마친 상태다.

조일성업 관계자는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오랜 고민 끝에 몰드시장 진출을 결정했다며 이미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선점하고 있어 막차를 탄 느낌은 있지만 그동안 국내에 쌓은 조일의 명성을 바탕으로 국내시장을 공략하겠다고 밝혔다.

조일은 몰드시장 진출을 올 상반기부터 설비보강을 준비했으며, 인력은 국내 대기업에서 몰드 변압기 생산에 참여한 베테랑을 스카우트했다.

조일성업은 사업초기 단체수의계약 배정에 치중한 후 본궤도에 올라서면 민수시장을 공략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조일성업까지 몰드변압기 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몰드변압기 시장은 LG산전, ABB코리아, 효성,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과 산일전기, KP일렉트릭을 축으로 한 중소기업간 치열한 가격경쟁이 예상된다.

현재 몰드변압기 국내 시장은 약 800억원대로 대기업 4사에서 시장의 90% 가량을 점유하고 있으며, 후발주자로 산일전기와 KP일렉트릭에서 단체수의계약 물량을 배정받고 있는 상황이다.

## 아모텍, 일진전기서 ‘바리스터’ 사업부문 인수

일진전기(대표 홍순갑)는 전자부품의 일종인 ‘바리스터’ 사업 부문을 아모텍(대표 김병규) 27억 5000만원에 이양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인 아모텍은 칩바리스터 등 신소재·부품 전문 생산업체다.

이번 계약에 따라 일진은 아모텍측에 생산설비 및 재고와 영업권 일체를 매각한다. 양자간 합의에 따라 종업원의 고용승계는 아모텍이 보장하게 된다.

바리스터(varistor)는 정전기(ESD:Electro Static Discharge)나 과전압(surge)으로부터 전자기기의 손상을 방지하는 부품이다. 일진전기는 지난 1988년부터 디스크 바리스터를 생산, 지난 2001년에는 칩(chip) 바리스터의 양산에 성공했다.

일진전기의 지난해 이 부문 매출액은 45억원. 하지만 최근들어 바리스터 사업의 매출 성장이 정체되고 수익을 내지 못하자 매각을 결정하게 됐다.

홍순갑 일진전기 사장은 “최근 일진전기가 광케이블 전문업체인 (주)일진을 흡수·합병하며 배기가스정화장치(DPF) 등 미래환경사업과 전력엔지니어링 사업 등 신소재사업에 핵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연내 대부분의 구조조정을 마치고 내년에는 사옥매각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오는 2006년까지 무차입경영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에도 그룹의 창업 아이템인 주조사업을 매각한 바 있는 일진전기는 서울 마포 본사사옥과 천안 공장부지 등도 매각을 추진, 현재 150%대의 부채비율을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 KD파워 비롯 중전기기 3개사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

중전기기 전문업체인 (주)케이디파워와 변압기 전문업체인 신영중전기(주), (주)한창트랜스및 공기업인 한전원자력연료, 한전기공(주)이 2003년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지난 2일 기술 표준원 대강당에서 증서를 수여받았다.

또 이날 한전원자력연료 강성훈 부장과 신영중전기 김금중 상무이사가 97년부터 5회이상 우수기업에 선정돼 산자부장관 표창장을 받았다.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제도는 품질경쟁력이 우수한 기업을 발굴해 홍보 및 판로등을 지원하고 후발업체에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94년부터 실시해왔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금융권의 자금 대출시 우대와 국가 품질상 포상심사시 가점부여 및 컨설팅 지원등의 정책지원이 이뤄진다.

## 보성파워텍, 철구조물 설비이전 완공식

보성파워텍(주)(대표 임도수)은 지난 20일 신규 충주공장에서 철구조물사업부문 설비이전 완료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보성파워텍은 지난 5월 경매를 통해 신호제지의 계열회사인 충주 소재 신호기공을 50억원에 낙찰 받아 지금까지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철구조물 설비를 충주 신호기공 공장부지에 이전해 왔다.

또한 기존 철구조물 생산공장인 안산 제3공장은 지난달 35억2천만원에 매각했다.

보성파워텍은 기존 안산 제3공장이 3천평규모인 데 반해 충주 신호기공 공장은 총 2만5천평 규모

에 달해 생산능력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각종 형강류, 송배전 철탑 구조물, 강관전주류, 진중전력구 앵글 지지대 등 각종 금구류 생산설비에다 신호기공의 H빔 가공설비까지 보유하게 됨에 따라 철구조물사업을 대폭 강화하게 된다.

### 동아전기, 比 변압기시장 인기몰이

동아전기(주)(대표 신상균) 변압기가 필리핀 시장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동아전기는 올 초부터 필리핀에 13만 달러 가량의 물량을 수출했으며, 올 연말까지 30만달러 수출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했다.

동아전기가 수출하는 품목은 폴타입 배전용 변압기다.

동아전기는 해외시장에서 5천~1만kW급 변압기 수요가 높은 만큼 1만kW급 154KV용 변압기 생산도 준비중이다.

이를 위해 현재의 공장에서는 대용량 변압기 생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공장을 좀더 큰 곳으로 옮긴다는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필리핀 수출물량이 늘어나면서 생산라인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며, 경기도 김포 대곡동에 5천500평의 부지를 확보해 공장이전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동아전기는 필리핀 시장 외에 현재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 지역의 9개국과 수출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 회사 신영균 부장은 해외 바이어로부터 가격·품질면에서 후한 점수를 얻고 있어 조만간 대규모 수출이 성사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전기는 지난해 4분기부터 국내 변압기 시장이 침체로 돌아서자 올 초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려 필리핀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

Memberships